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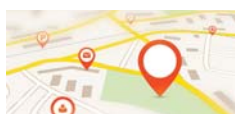


은빛 물결 취해 걷다 웅장한 분화구에 탄생



1 국내 유일 마르형 분화구를 지닌 산굼부리.
2 제주 산굼부리에 많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찾아 은백색 억새꽃길을 걸으며 가을을 즐기고 있다.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강희만기자



제주 핫플레이스 (55) 산굼부리

가을, 제주의 으뜸은 은빛 물결의 역세로 장관을 이룬다. 역세는 가을 끝자락에 갈수록 더 절정으로 치닫는다. 제주에서 역세 명소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산굼부리다. 오름 전체가 역세로 일렁이고 병풍처럼 펼쳐진 오름 능선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산굼부리는 산에 생긴 구멍(굴)이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굼부리는 화산체의 분화구를 이르는 제주말이다. 산굼부리는 제주의 경치를 아름답게 담아낸 영화 '연풍연가'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데, 당시 화면에 등장한 드넓은 역세 군락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산굼부리에는 분화구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탐방로가 코스별로 4곳이 조성돼 있다. 역세로 사방이 포위된 탐방로는 비교적 평탄해 노인 과 어린이도 수월하게 오를 수 있다. 정상에 오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 남짓이다. 다만 인증샷을 찍기 위해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 역세밭 안으로 들어가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금물이다.

전망대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와 함께, 정상을 알리는 정상석이 세워져 있다.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가을 풍경에 더해 웅장하게 펼쳐진 분화구를 내려다볼 수 있다.

산굼부리는 지질, 생태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오름은 봉긋한 화산체가

4곳 탐방로 감싼 역세 군락 '일품' 산굼부리, 지질·생태적 가치 뛰어나 분화구 안에 난대·온대성 수목 공존

있어 마치 대접을 얹어 놓은 듯한 모양이지만 산굼부리는 정반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형태를 마르형 분화구라고 하는 데, 마르형은 국내에서 산굼부리가 유일하다.

분화구 정상부 둘레는 약 2km, 분화구 바닥 넓이는 2만6000여㎡에 달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주차장에서부터 분화구까지의

높이가 약 30m인 데 반해 정상에서부터 분화구 바닥까지의 깊이는 약 130m에 달한다는 것이다. 깊이가 따지면 백록담 화구(115m)보다 더 깊다. 야트막한 오름일 것이라고 생각한 탐방객들이 정상에 오른 후 웅장한 분화구의 모습에 깜짝 놀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굼부리는 그동안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분화구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지각변동 등의 이유로 새이 나가면서 빈 공간이 생겨났고, 이후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함몰형 분화구가 생성됐다는 연구가 나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산굼부리 분화구는 신비로운 생태계까지 탄생시켰다. 분화구 안에는 난대, 온대성 수목이 공존하고 있다. 분화구 내부 높이에 따라 태양이 비치는 일사량과 일조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조량이 적은 북쪽 사면에는 난대성 식물, 일조량 많은 남쪽사면에는 온대성 식물이 자란다.

시간만 잘 맞추면 이런 산굼부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설사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다. 산굼부리 해설 프로그램은 화요일을 제외한 매주 오전 9시30분~10시30분, 오후 2시~3시~4시 등 모두 5차례 진행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바다와 문학 (25) 문영중 시 '늪은 배의 꿈'



노을지는 포구에 쉬고 있는 어선들. 문영중 시인이 등단 32년 만에 내놓은 시집 '물의 법문'에는 직접적 바다 체험을 기반으로 쓰여진 시편들이 흩어져있다.

"가슴 속에 닻 내려 한 점 기억으로"

외항선 타고 선상생활 15년 직접적 바다 체험 시로 직조 "상처도 아픔도 물이 되어..."

바다를 읊은 시인들이 많지만, 대개 바라보는 대상이거나 현실 너머 상상의 발현과 달아있다. 그는 다르다. 배에서 기계를 다루며 바다를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나날을 시로 품었다. 1978년 월간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왔고 데뷔 32년 만에 첫 시집 '물의 법문' (2010)을 냈던 제주 문영중 (1955~) 시인이다.

그는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하고 15년 동안 외항선을 탔다. 시인으로 발디뎠던 해를 헤아려보니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선상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그 직전이었던 것 같다. 바다가 그의 시를 낳았을지 모른다.

시집은 4개의 장으로 짜여졌는데 바다와 바다가 아닌 것에 대한 노래로 나누어도 될 듯 싶다. '나의 잠속의 바다'를 시작으로 눈뜨면 망망대해 바다 밖에 보이지 않았을 어느 시절이 흩어져있다. 바다를 달아가듯, 바다에 닿아지듯 그에 대한 심상이 곳곳에 드러난다.

'나를 끌고 다닌 바다여/ 그 술한 기억들 기억 속에 묻혀/ 너무 오래 출렁거렸구나 이제는/ 깊이조차 알 수 없는 그대/ 가슴 속에 닻 내려/ 한 점 기억으로 떠 있게 해 다오' ('늪은 배의 꿈' 중에서)

'물 끝에 수장해' 달라는 '늪은 배'는 지금은 바다를 떠난 시인의 상황이면서 나이든 현실을

빛대는 말이다. '싱싱한 하루 하루'는 과거가 되었고 그래서 '기억'이란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어느덧 밤바다 캄캄한 현실에 놓인 시인은 '자그만 물너울에도 무력하게/ 뒤뚱거리는 나' ('바다 떠돌이의 노래')가 되어버렸다. 멀리서 바라보는 바다는 낭만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치열한 싸움터다. 뱃일을 하는 이들의 시선을 따라가보자.

'바다는 가까이서/ 아냐, 멀리서 바라보아야/ 쇠냄새 나는 배에선 허가 말라, 언제나/ 먼 공간을 꿈꾸는 바다지/ 몸 속의 물이 출렁거리/ 물소리가 단월 적마다/ 배가 머리를 숙이고/ 빛 속에서 만나 물 무늬로 모여드는 기억' ('수부수첩 (水夫手帖)' 중에서)

현한 바다는 또 다른 생의 교과서다. '둥둥 떠 바다에/ 온 몸 풀어 물결에/ 온 바다 떠돌아다니며/ 거센 물결에 부딪쳐 바스라지며/ 바닷살과 갈아지며/ 물빛에 취해 온 몸/ 상처도 아픔도 / 물이 되는 사랑' ('해파리를 위하여' 전문)을 배웠다.

등단작인 '물빛아'에서 바닷가 랑이로 물구나무 서는 바다를 보고 있었던 아이의 모습은 더 이상 없지만 끝난 데 없는 그 존재감은 어른이 된 그 시적 화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밀려오는 산 같은 파도에 배는 번번이 비명을 지르지만 물결이 꿈틀대는 한 피할 수 없다. 생사를 가르며 건너는 물길 쪽 하늘은 때가 되면 맑아진다. 다시 세찬 물살이 닥쳐도 그것들은 언젠가 뒤로 물러날 거라는 걸 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2019 한라산 고상도로 전국 걷기대회



고상도로

에베레스트, 한국인 초등자인 '정상의 사나이' 고상돈을 기리는 의미를 담아, 2010년 2월 명예도로로 지정됐다. 한라산 1100도로 중 제주시 아승생수원지 삼거리에서 서귀포시 제주국제대학 사거리까지 18km 구간이다.

- **신청기간** 2019년 10월 7일부터 (선착순 2,000명, 참가비 입금 순)
- **참가신청** 접수처: (사)고상돈기념사업회 (전화, 팩스, 이메일 접수)
TEL: (064) 721-8848 FAX: 070-7966-1020
E-mail: kosangdon@naver.com

- **참가비** 1인당 10,000원(원주상품 교환권, 경품권, 전세버스 제공) ※ 제주산악문화발전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원주상품은 행사 참가자에 한해 걷기대회 중 개별 지급
입금계좌: 농협 301-0111-4696-24, 예금주: (사)고상돈기념사업회
- **집결장소** 시민복지타운광장 (정부종합청사 서쪽 공원) 08:30까지
개회식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행사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준비물: 도시락, 배냇, 식수, 방한복, 기타

일시: 2019. 11. 3(일) 오전 9:30 개회식, 10시 출발

장소: 한라산 고상도로

▶ 개회식: 아승생수원지 삼거리
▶ 걷기코스: 아승생수원지 삼거리 ~ 1100교지 고상돈공원(8.848m 구간)

주최: (사)고상돈기념사업회

협찬: BLACKYAK
DESIGNED BY MOUNTAINEERS